



삼성에서 감독과 수석코치로 손발을 맞췄던 '타이거즈 레전드' 선동열(왼쪽)과 한대화가 명가재건을 목표로 KIA 감독과 2군 감독으로 재결합한다. <KIA 타이거즈 제공>

### PGA 투어 신인 김시우 내년 7개 대회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켈리파인스를 에서 최연소 합격 기록을 세운 김시우(17·신성고·사진)가 내년 시즌 출전할 수 있는 대회는 7개로 좁혀졌다.

매니지먼트사인 세마스스포츠마케팅은 김시우가 만18세가 되지 않아 PGA 투어 정식 멤버가 되지는 못했지만 규정에 따라 내년 시즌 6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여기에 내년 3월7일(현지시간) 개막하는 푸에르토리코 오픈에 초청을 받아 김시우의 내년 시즌 출전 가능한 대회는 7개다.

내년 6월28일에 만18세가 되는 김시우는 지난 시즌 상급랭킹 125위, 켈리파인스를 성적 25위, 2부 투어 상급랭킹 25위안에 드는 선수에게 출전 자격을 주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2013년 대회는 그린브라이더 클래식부터 존디어 클래식, 트루 샤프스 클래식, 캐나다오픈, 리노-타호 오픈, 윈덤 챔피언십까지 6개 대회다.

PGA 투어는 상반기까지 성적에 따라 네 차례 출전 선수 자격을 재조정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많은 대회를 뒀 수 없는 김시우의 대회 출전 수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김시우가 출전한 대회에서 톱10안에 드는 좋은 성적을 올리면 다음 대회 출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대회 주최사로부터 초청



을 받는다면 출전 대회수를 늘릴 수 있다. 반대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출전 대회수는 줄어든다.

이 때문에 김시우는 2014년 투어 출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대회에서 강행군을 계속해야 한다.

한편 김시우는 미국 코스에 적응하기 위해 내년 1월 초 캘리포니아주 라진타로 전지 훈련을 떠난다. /연합뉴스

## KIA 타이거즈 레전드 사단 꾸러진다

### 선동열 감독 절친 한대화 2군 감독 부임... 내년 시즌 기대

타이거즈 레전드 사단이 꾸러진다. 한대화 전 한화 감독이 KIA 2군 감독으로 친정팀 유니폼을 입는다.

한 감독은 내달 4일 시작되는 KIA 새해 합동훈련을 통해 타이거즈 지도자로 새 출발을 한다.

1986년 OB(현 두산)에서 KIA 전신인 해태로 이적한 한 감독은 1993년까지 8년간 타이거즈에서 뛰면서 6년 연속 3루수 골든글러브를 휩쓰는 등 야구 인생의 꽃을 피웠다. 2009년부터 올 시즌까지 3년간 고향팀 한

화 사랑함을 받았던 한 감독은 시즌 막판 경질되면서 그리운 땅을 떠났다가 화려한 야구 인생을 피운 야구 고향 광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한 감독은 "20년 만에 다시 광주로 돌아오게 돼서 감회가 새롭다. 얼마 전 코칭 스태프와 워크숍을 했는데 다 옛날에 야구를 했던 사이라 서먹하지도 않고 반갑게 맞아줬다. 기쁘다"고 복귀 소감을 밝혔다.

야구계 소문난 절친 선동열 KIA 감독과 4년 만의 재회도 이뤄지게 됐다.

2004년 삼성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한 감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수석코치로 선 감독과 손발을 맞추며 두 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루었다.

한 감독은 "KIA에 유망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2군이지만 1군에 필요한 선수를 잘 골라내고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겠다"며 "선동열 감독이 될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 편안하게 팀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또 명가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한 감독의 부임과 함께 호랑이와 독수리의 대결이 2013시즌 프로야구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한 감독을 시즌 막판 경질시켰던 한화는 김응용 감독을 필두로 김성환 수석코치, 김종모·이종범·이대진 등으로 코칭 스태프를 꾸렸다. 타이거즈 레전드가 대거 포진하면서 '타이글스'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KIA도 선동열 감독과 이순철 수석코치 체제에 한대화 2군 감독을 더하면서 타이거즈 레전드 사단을 꾸렸다.

프로야구 무대를 호령했던 타이거즈 레전드 사랑팀 대결이 2013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윤희상·손아섭 WBC 대표팀 합류

투수 윤희상(27·SK)과 외야수 손아섭(24·롯데)이 내년 3월 열리는 제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에 합류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투수 김진우(29·KIA)와 외야수 추신수(30·신시내티 레즈)를 대신할 선수로 윤희상과 손아섭을 발탁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윤희상은 올 시즌 SK를 6년 연속 한국시리즈로 이끈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긴 무명 시절을 보내다가 지난해 처음 이름을 알린 그는 올 시즌 10승9패와 평균자책점 3.36을 기록했다. 정교한 제구력과 날카로운 변화구를 두루 갖췄다.

손아섭도 201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3할 타율을 기록한 고타자다. 올해 132경기에 출장, 타율 0.314(3위), 안타 158개(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양현종 5000만원·이범호 6000만원 삭감

## 부진했던 호랑이들 '연봉 한파'

#### 선수 41명 재계약 완료

부진한 한해를 보낸 양현종이 연봉 한파를 맞았다.

KIA 좌완 양현종이 27일 지난 시즌 1억4000만원에서 5000만원 삭감된(35.7%) 9000만원에 재계약을 끝냈다

여계 통증으로 스프링 캠프에서 중도 하차했던 양현종은 벨런스가 흔들리며 올 시즌 28경기에서 41이닝을 소화하며 1

승2패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지난 시즌 4억9500만원을 받았던 내야수 이범호도 6000만원 삭감된(12.1%) 4억3500만원에 연봉 도장을 찍었다.

이범호는 2011년 당한 햄스트링 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올 시즌 42경기에 출전해 0.293의 타율로 41안타 2홈런 19타점 13득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신중길은 60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된(25%) 4500만원에, 김

주형은 45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된(22.2%) 3500만원에 각각 재계약했다.

깜짝 마무리로 활약한 최한남은 지난 시즌 7000만원에서 동결됐다.

한편 KIA는 2013시즌 연봉 체계약 대상자 48명중에 41명과 재계약(재계약율 85.4%)을 마쳤다. 서재응, 윤석민, 최희섭, 김상현, 이용규, 김상훈, 차일목이 계약을 남겨 두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시체육회, 꿈나무 4명에 장학금



광주시체육회 임직원들이 꿈나무 선수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시체육회는 지난 26일 제93회 전국체전 및 전국대회에 입상한 김상운(정광고3·여도), 김기환(광주공고·씨름), 심가영(세종고1·소프트볼), 서희성(동일전자정보고1·우수공부)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수 성적을 거두며 광주체육을 이끌어 나갈 유망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체육회 임직원들은 2009년부터 매월 급여에서 체육장학금을 공제, 19명의 선수에게 850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시청 장애인 탁구 실업팀 후원금 전달

광주시청 장애인 탁구 실업팀 선수들이 '2012 광주시장애인탁구협회 송년회'에서 탁구 꿈나무 후원금을 전달한다.

광주시장애인탁구협회(회장 이명자)가 28일 서구 치평동 장애인탁구 실업팀 훈련장에서 2012 송년회를 연다.

올 시즌 런던 패럴림픽과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내며 최고의 한해를 보낸 장애인탁구선수들과 가족, 협회 임원 및 자원 봉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한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내년 시즌의 선전을 다짐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청 장애인 탁구 실업팀 선수들이 준비한 탁구 꿈나무 후원금 전달도 이뤄진다. 이들은 송정호·송정중·태봉초·경신여중 탁구팀에 각각 50만원씩 후원금을 전달한다.

광주시청 장애인탁구 실업팀 김공용 감독은 "장애인체육 환경이 아직 풍족하고 여유롭지는 못하지만 나눔의 실천을 통해 탁구 꿈나무 선수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광주체육 발전에 장애인체육도 함께 하는 밝은 분위기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3만원으로 떠나는 제주도여행

매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로 목포항까지 편안하게!  
국내최대 씨스타크루즈호 타고 제주까지 안전하게~3만원으로 떠나세요.

## 광주⇄목포 셔틀버스 + 씨스타크루즈호

광주출발 06:40 광천터미널 맞은편 목포출발 21:30 여객터미널 주차장  
\*1인 원도요금이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광주출도착 제주도 2박3일 139,000원**

- 1일자** 도두봉 트래킹, 웅두암 용연, 노을언덕 무인카페
- 2일자** 오설록, 생각하는 정원, 서커스월드, (현지직불) 서귀포유람선, 롯데호텔정원, 올레길
- 3일자** 선녀와나무꾼, (현지직불) 몽골리안미상소 or 매직쇼,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허브동산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 셔틀버스, 왕복선박료, TAX, 차량, 일반 호텔(5-6인실), 일정포내 입장료, 식사(중식2회,조식2회)  
불포함사항: 가이드 팁, 개인비용, 현지직불관광, 자유식식  
금, 토 출발시 20,000원 추가 / 2인실 이용시 30,000원 추가

**씨월드 고속훼리(주) 우수대리점. 제주배닷컴 www.jeube.com 1644-2261**